법화삼매로 다시 읽는 천태학



법화삼매의 사상과 신행
영신(이기운) 지음
동국대학교출판부
2만5000원

법화삼매 사상과 수행 체계 조명
한·중·일 전승과 시대 변용 추적
신행·영험부터 현재적 의미 분석

배희정 기자 hbpress@hyunbul.com

천태학의 핵심 수행 전통 가운데 하나인 '법화삼매(法華三昧)'가 어떻게 형성되고 전승됐는지를 한·중·일 불교사의 흐름 속에서 살펴본 연구서가 나왔다. 이기운 전 동국대 불교학술원 조교수가 40여 년간 천착해 온 연구를 집대성한 〈법화삼매의 사상과 신행〉이다.

이 책은 법화삼매를 통사적 관점에서 조명하며, 그 사상적 형성과 수행 체계가 중국에서 한국과 일본으로 전승되는 과정을 살핀 학술서다. 총 4장으로 구성해 법화삼매의 사상적 출발점과 교학적 토대 구축, 중국에서의 전승과 관법화, 한국의 수용과 시대별 변용, 일본 전래와 신행 체계 등을 폭넓게 다룬다.

법화삼매는 〈법화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형성된 수행 전통이다. 〈법화경〉은 모든 중생이 궁극적으로 부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일불승(一佛乘)의 가르침과 제법실상의 진리를 설한다. 〈법화경〉에서는 이 깨달음을 전하고자 부처님이 직접 삼매에 들어 그 세계를 보여주는가 하면, 삼매 속에서 삼천대천세계의 실상을 드러내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부처님이 설하신 일불승의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삼매가 바로 '법화삼매'다.

전통적으로 〈법화경〉 수행은 경전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항상 지니고[受持], 읽고[讀], 외우며[誦], 베껴 쓰고[書寫], 남에게 권하여 가르치는[解說] 다섯 가지 행을 강조한다. 이를 '오종법사행(五種法師行)'이라 한다. 저자는 이러한 수행을 통해 〈법화경〉의 가르침을 몸과 말과 마음으로 실천해 삼업을 닦고 육근청정을 이루는 과정이 법화삼매 수행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2019년 미국에서 환수한 '감지은니묘법연화경(27.5㎝×900㎝, 국립중앙박물관)'.
현대불교 자료사진

본래 〈법화경〉에는 법화삼매를 비롯해 16가지 삼매가 설해져 있다. 법화삼매의 길을 처음 연 중국 혜사 대사가 이를 증득했고, 이를 이어받은 천태 지의 대사가 〈법화삼매참의〉 등 수행지침서를 편찬해 법화신행의 규범으로 삼았다. 이후 이 수행법은 지관(止觀) 법문의 사종삼매(四種三昧) 체계에 수용돼 법화원돈(法華圓頓) 수행문의 근간으로 자리 잡았다.

저자는 사상적 측면에서 법화삼매의 뿌리를 〈법화경〉을 소의(所依)로 삼는 천태교문(天台教門) 전반까지 확장해 짚고, 신행 측면에서는 한·중·일에서 편찬된 법화삼매집들이 어떤 수행 절차로 다듬어지고 전승됐는지 분석한다.

특히 한국 불교사에서는 삼국시대 구법과 전승부터 고려시대 수행집 편찬, 조선시대 사상적 맥락, 나아가 근대기 개혁론 속 천태사상 수용까지 다각도로 탐구한다. 아울러 사상·신행·영험이라는 세 층위의 서사 속에서 〈법화경〉을 지녀 얻은 영험 기록인 '법화영험전'을 함께 제시해, 법화삼매를 단순한 교리를 넘어 실제로 닦고 감응한 '살아 있는 전통'으로 다룬다.

나아가 저자는 불교의 대·소승 선수(禪修)를 통괄한 천태 지관명상을 심신치유와 인문치유의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한편, 천태학과 인공지능(AI)의 활용 가능성을 논하며 천태학이 미래 불교 전개에도 유용한 교학체계임을 강조한다.

저자는 "법화삼매는 〈법화경〉의 진리에 들어가는 문이자 천태 교학과 실천을 통섭하는 근본 철학"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혜사로부터 천태, 관정, 담연으로 이어진 중국 천태종사와 한국·일본으로의 법화·천태학 전래는 법화삼매의 증득과 그 전승으로부터 전개됐다"며 "법화 원교의 교문과 천태 원관의 교설, 그리고 수행법이 모두 법화삼매수행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동북아시아 천태종이나 법화·천태학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법화삼매 사상사의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대를 건넌 부처님 전생 이야기



본생담의 전승과 변용
조성금 지음
학연문화사
3만2000원

'본생담' 기원부터 전파·변용 추적
문헌과 불교미술로 살핀 전승 과정
각 지역 환경·문화 더해져 변주



본생담은 지역과 시대를 넘어 전승·변용되며 불교의 가르침을 전해왔다. 만당 시기에 조성된 '시비왕 본생도'.
사진 제공=학연문화사

부처님의 전생(前生) 이야기를 '본생담(本生譚)' 또는 '자타카(Jataka)'라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기 전 수많은 생을 거듭하며 때로 왕으로, 때로는 수행자로, 때로는 동물로 태어나 갖가지 선한 공덕을 행한 이야기들이다. 그 안에는 보시와 인욕, 자비와 효, 지혜와 희생 등 불교의 가르침이 오롯이 담겨 있다.

또한 본생담에는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사회와 자연환경, 인간관계와 윤리, 그리고 여러 지역을 오가며 전해진 이야기의 흔적이 겹겹이 담겨 있다. 팔리어로 전승된 본생담과 산스크리트계 문헌, 한역 불전에 등장하는 본생담이 서로 같으면서도 다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번역과 전승 과정에서 각 지역의 환경과 문화가 자연스럽게 더해졌기 때문이다.

〈본생담의 전승과 변용〉은 저자가 2022년 현대불교신문에 연재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바탕으로 '본생담은 어디에서 시작해 어떻게 전 세계로 전해졌는가'를 추적한 책이다.

불교미술사를 전공한 저자에게 본생담은 문헌 속 이야기인 동시에 그림으로 읽어야 할 이야기다. 인도의 스투파(탑)와 간다라 불교조각, 쿠차의 키질석굴과 돈황 막고굴의 벽화 등을 통해 본생담의 전승과 변화를 읽어낸다.

대표적인 사례가 시비왕 이야기다. 간다라 지역에서 출토된 '시비왕 본생부조'와 북위시대에 조성된 돈황 막고굴 제254굴의 벽화 '시비와 본생도'에서는 이 이야기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돼 있다. 저자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달라진 표현을 비교하며 본생담이 각 문화권에서 어떻게 재구성되고 이어졌는지를 보여준다.

1부 '원형'에서는 인도에서 전해진 본생담을 중심으로 부처가 되기 전 보살의 삶을 살펴본다. 사슴과 코끼리, 원숭이로 태어난 보살에서부터 자신이 몸과 모든 재산을 내어준 왕과 태자의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초기 본생담을 관통하는 자비와 보시, 인욕과 희생의 의미를 짚는다.

2부 '이동'에서는 본생담이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로 이동한 과정을 다룬다. 실크로드를 오가던 상인들과 쿠차·돈황의 석굴, 한역 불전 등을 따라가며 본생담이 새로운 지역에 자리 잡는 과정을 살핀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인물과 사건이 더해지고 그 지역의 문화와 가치가 이야기 속에 스며든다.

3부 '변용'에서는 본생담이 다른 문화권, 특히 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에 주목한다. 〈토끼전〉 〈심청전〉 〈옹고집전〉 등 우리에게 익숙한 고전소설에서 본생담과 닮은 서사와 모티프를 찾아내며 이야기의 전파와 변용이 한국문학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책은 본생담이 시대와 지역을 건너며 새로운 문화를 만나고, 변주되는 모습을 문헌과 불교미술을 함께 살피며 추적한다.

여수령 기자

중생의 마음에서 길을 찾다



니까야로 읽는 대승기신론
이중표 역해
불광출판사
3만3000원

초기 경전으로 본 '대승기신론'
마음 작동 원리·수행의 길 제시

동아시아 불교 사상사에 큰 영향력을 끼친 〈대승기신론〉을 초기불교 경전인 '니까야'의 관점에서 새롭게 풀어낸 책이다.

〈대승기신론〉은 원효 스님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의 고승들이 수많은 주석서를 남겼으며, 현대에도 다양한 해설서가 출간되고 있다. 그러나 일심(一心), 이문(二門), 삼대(三大), 심진여문(心眞如門), 심생멸문(心生滅門) 등 핵심 개념을 이해하기란 여전히 쉽지 않다.

저자는 초기 경전인 '니까야'를 바탕으로 〈대승기신론〉을 다시 읽으며 논서의 핵심이 '중생의 마음'에 있다고 설명한다. 중생심(衆生心)은 대승에 대한 믿음이 비롯되는 근거이자, 수행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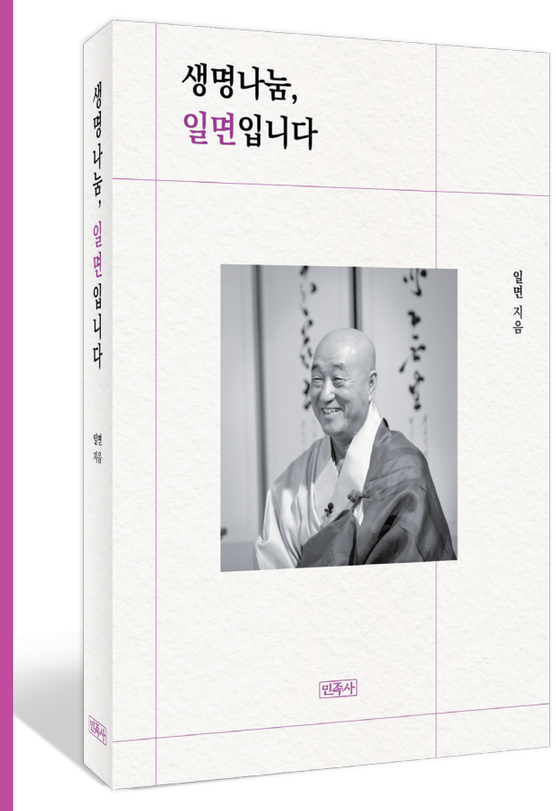
〈대승기신론〉은 중생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마음 자체가 열반으로 나아가는 '큰 수레'임을 일깨운다. 그리고 마음의 실상인 진여(眞如)를 깨달아 궁극적으로 붓다의 세계에 이르는 길을 제시한다.

책의 또 다른 특징은 인간의 마음과 삶 전체를 하나의 '생명 시스템'으로 바라본다는 점이다. 저자에 따르면 중생의 괴로움은 무명과 집착, 분별로 인해 마음의 구조와 기능이 본래의 모습을 잃고 왜곡된 데서 비롯된다. 이런 관점에서 중생은 본래의 가능성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고장 난 생명 시스템'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저자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행이란 왜곡된 생명 시스템을 본래의 질서로 회복시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과정임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여수령 기자

한 생을 돌아보니, 모두가 은혜였습니다
덤으로 얻은 생명에서 나눔의 길로, 수행과 자비로 채운 80년의 여정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이 모두 부처님이었음을"

『생명나눔, 일면입니다』
2000년 1월 8일,
죽음의 문턱에서 간 이식으로 두 번째 삶을 얻은 일면 스님.
스님은 그날 이후의 삶을 '덤으로 얻은 생'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로 생명나눔의 삶을 걸었습니다
일면 지음 | 352쪽 | 17,500원

교보문고 바로가기



도서출판민족사 | 02-732-2402 | www.minjoksa.org